

'96상반기 산업별동향과 향후 전망

이 규 철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조사부〉

1. 개 관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은 경기순환 요인에 따른 경기 하강 국면으로 엔低의 지속, 세계교역의 불황, 주요 원자재 및 소재가격의 하락 등 對外的요인이 가미되어 수출 및 내수의 부진, 재고 증가, 생산둔화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년 2/4분기 이후 생산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7월에는 수출증가율이 42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년 상반기의 무역적자 규모(통관기준)도 美貨90억불을 상회하였다. 중화학공업이 작년의 37.6% 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중 11.6% 증가로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경공업은 작년 7.4%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중 10.6% 증가로 증가율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직물, 종이, 가죽 등이다.

그간 경기확장국면에서 심화되었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경기 양극화 현상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소 완화되어 성장률의 경우 중화학공업은 작년의 14.8%에서 금년 1/4분기중 10.8%로 감소했으나, 경공업은 작년의 -0.7%에서 금년 1/4분기 -2.0%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은 6월현재 50개월만에 최저 수준인 0.1%를 기록하고 부도업체수도 5,516개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중소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작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중소제조업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고비용구조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에 의한 국내투자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특히 전자,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생산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우기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는 대기업에 의한 투자가 증가하여 件當 투자 규모도 대형화하고 美洲지역으로의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동향(허가기준)

단위 : 백만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상반기
해외직접투자	1,210 (-20.0)	1,872 (54.7)	3,587 (91.7)	4,914 (37.0)	2,859 (50.1)
외국인 투자	894 (-35.9)	1,044 (16.8)	1,317 (26.1)	1,941 (47.4)	1,268 (32.9)

주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이러한 국내 산업환경은 하반기에도 수출의 뚜렷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내수도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금년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에는 엔低현상의 이완, 경기 순환요인 등에 따라 산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2. 업종별 동향 및 전망

(1) 반도체

금년 상반기중 반도체는 급격한 가격하락 현상

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국내업체들도 생산량을 크게 확대한데 反하여 PC 등 수요부분에서의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 반도체 수출액은 103억달러로 증가율이 작년 한해의 70.3%에 비해 크게 낮은 15.2%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반도체업체가 생산감축과 적정재고관리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가격하락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위주의 생산체제로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로서 비메모리 분야를 집중개발하여 반도체 생산품목의 고도화와 함께 반도체 설계인력의 양성 등 질적·양적인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요구된다.

금년 하반기에도 수출물량은 다소 늘어나겠으나 수출단가가 낮아져 수출금액은 오히려 前年同期對比 7% 감소할 것으로 보여 연간 수출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입 전망

단위 : 억달러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수 출	221	103	122	225	265
수 입	91	49	52	101	112

(2) 家 電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이후 日本에 이어 세계 2位の 가전제품 생산국을 유지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 추월당하여 3位로 밀려나 지난해 세계시장의 점유율도 9.5%에 머물고 있다. '93년 이후 국내 가전제품은 엔高에 따른 수출정책의 우세와 C-TV등 주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 인하 및 생산업체간 가격인하 경쟁등에 힘입어 수출은 물론 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금년에 들어서도 수출은 엔低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남미, 동남아 등 제품생산이 비

교적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금년 상반기 수출액은 40억5천만 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 44억달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수출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내수는 공급과잉과 국내경기의 후퇴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현재 가전산업은 세계적인 보급율의 포화상태로 기존제품의 매출이 크게 둔화되어 디지털혁명에 따른 새로운 고성능의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은 원천적인 기초기술인력의 부족등으로 첨단기술에 의한 고기능 신제품개발이 어려운 데다, 기존제품 시장에서도 후발개도국의 가격경쟁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제품의 수출입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수 출	78.6	40.5	43.8	84.3	88.9
수 입	16.2	7.9	9.2	17.1	19.1

이는 국내 가전업체들이 주로 OEM방식에 의한 수출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며, 또한 제품품질면에서도 국내기업들이 품질혁신운동 등을 통해 불량율을 줄여가고 있으나 선진국제품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데 기인하고 있다.

(3) 철 강

금년 상반기중 우리나라가 생산한 철강은 약 1,960만톤으로 이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5位の 철강생산국으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은 지난해 중반 이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앞질러 철강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다. 여기에 국내 철강산업은 금년 들어 경제성장률의 둔화, 설비 투자의 위축으로 철강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철강재의 재고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 상반기 중 철강 수출은 국제 철강가격의 20% 이상 하락으로 지

한해 상반기에 비해 23.3% 감소한 30억 달러에 머물렀다. 금년 하반기중에는 수출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내수는 상반기의 철강명목소비중 상당 부분이 재고로 남아 하반기로 이월될 것으로 보여 감소할 전망이며, 수출은 국내 공급능력의 확충으로 수출여력이 확대되고 국제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아 지난해 하반기 수출액인 32억달러보다 다소 높은 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 수출 추이 및 전망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물량(만톤)	956	477	492	969	1,007
금액(억달러)	72.5	30.3	35.0	65.3	70.0

국내 철강 산업은 일반제철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원료, 인건비 및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로제강업의 경우 스크랩가격의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조강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범용강재 위주로 생산구조가 이루어져, 특수강의 생산비중은 10%내외로 선진국의 18~20% 수준에 머물고 고급강의 생산비중도 日本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80년대 들어 철강산업은 수요산업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급신장하였으나 국내 철강소비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철강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철강산업은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인 점에서 합리적인 신·증설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요산업의 성장둔화와 구조고도화에 대비하여 특수강이나 고급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도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석유화학

우리나라는 작년말 현재 에틸렌 기준 年産 39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5위의 석유화학공업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년들어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과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급락하여 채산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수지를 기준으로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94년초까지 톤당 600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6월에는 1,300달러에 2배 이상 상승하였다가 그후 다시 하락하여 금년 상반기중에는 900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작년 국제 가격이 급증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 호황과 '94년 하반기중 다수의 대규모 공장에서의 事故로 인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제품수출가격추이

(합성수지 기준 톤당, 달러)

94.1월	94.12월	95.6월	95.12월	96.6월
663	1,110	1,309	903	917

한편 금년 상반기중 수출금액은 27억달러로 전년동기비 물량이 13.3% 증가하였음에도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제품 수출 추이 및 전망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물량(만톤)	369	166	167	333	350
금액(억달러)	57.6	26.6	28.4	55.0	57.8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톤당 9백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금년 하반기의 수출금액도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28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년 총수출은 전년대비 4.5%정도 감소한 55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97년)에는 좀더 증가할 것이 예견된다.

내수는 섬유산업 등 관련산업에서의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작년 보다는 다소 둔화될

4%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공정기술을 도입하여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에 치중해 온 탓으로 이들 제품의 경우 생산기술 및 품질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비슷하고 가격경쟁력도 괜찮은 편이나 핵심 기술은 크게 낙후된 상태여서 신제품개발기술, 설계기술, 촉매기술 등은 선진국의 40%~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 평균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3배정도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화학제품생산의 30% 내외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아세안, 중국 등에서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추진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우리의 수출이 과거처럼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내의 수급전망, 품목간 연계성, 대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생산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 일변도의 수출시장에서 다른 지역으로까지의 수출을 다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자동차

지난해 우리나라는 252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상, 세계 자동차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증가율 0%를 보였던 자동차 내수가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부의 輕車지원책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한 82만대를 기록하였으나, 輕車를 제외한 보통승용차의 내수 증가율은 5.1%에 그쳤다. 작년 97만대를 기록하였던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금년 상반기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7%증가한 57만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들어 엔貨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年末까지 105엔선에서 안정될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도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일본 차들이 새로운 모델을 앞세워 수출가격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자동차 수출신장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수출 추이 및 전망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물량(만톤)	97.9	57.2	58.0	115.2	130.7
금액(억달러)	76.8	44.5	45.9	90.4	104.4

내수부문에서는 업계의 노사분규 여파로 비교적 부진한 산업활동을 보였으나 금년 하반기의 보험료 인하, 주차료 인하 등 추가적 輕車지원책의 시행으로 輕車의 수요와 공급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며, 따라서 輕車를 포함한 금년도 내수판매량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17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들은 부품의 65%를 외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完成車의 품질경쟁력이 이들 부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에도 외주부품의 생산성과 품질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비 절감과 함께 부품업체를 육성하고 제품개발시 부품생산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화, 경량신소재 등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강화하여 선진국의 저가차 공세, 엔低에 따른 국내차의 수출등 소형 승용차의 생산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조 선

우리나라는 '79년부터 일본에 이은 세계 2위의 조선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해 오고 있어 작년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은 수주량 기준 30.4%, 건조량 기준 26.3%에 이르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선박 건조량은 전량 수출분으로서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78.2% 증가

한 34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 2년간 수주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데다 새로 확충한 건조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때문인 것이다. 반면에 금년 상반기중 선박수주량은 전년동기에 40.8% 감소한 49척, 190만G/T에 그쳤는데 수출실적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엔低로 인한 對日가격 경쟁력의 약화가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금년 하반기 이후 세계 조선산업은 OECD 조선협정의 발효, 일본 조선산업의 규제 완화 등으로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하반기에도 선박수주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여전히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건조량 또한 작년 하반기보다는 금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감소된 27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船價는 91년 이후 매년 20%씩 하락하다가 OECD조선협상이 타결된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내년도 선박 건조규모는 금년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이 270척, 1,191만G/T, 108억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4%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과 비슷한 6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 수주량은 船種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금년보다 금액면에서 약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박수주 및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만G/T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수 주	67.7 (712)	19.3 (190)	31.7 (310)	51.0 (500)	66.5 (680)
수 출	50.5 (565)	34.0 (389)	27.0 (306)	61.0 (695)	65.0 (750)

주 : ()내는 선박량임

세계 조선수요는 탱커, 벌크 캐리어 등 범용선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수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작년 상반기에는 日本에 비해 18%의 우위를 보였으나 現在는 엔低로 그 격차가 없어진 데다 오히려 비가격경쟁력을 감안한

종합경쟁력에서는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 주력해 온 데다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 투자 또한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건조 기술수준은 일본의 70~80% 수준이며 또

일반기계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수 주	81.9 (33.0)	45.3 (17.2)	49.7 (14.8)	94.9 (15.9)	113.9 (20.0)
수 출	204.0 (35.0)	104.3 (2.5)	114.0 (11.5)	218.3 (7.0)	244.5 (12.0)

주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임.

한 선박 가공시간 및 건조 자동화율에서는 일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업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되 부가가치 및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품목 위주의 질적 국산화에 주력하여 표준화, 규격화를 확산시키고 조선소간 협업화, 분업화의 체계를 갖추어 조선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집약된다.

(7) 일반기계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94년 기준 세계 총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 1.9%에 달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은 금속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건설, 광산기계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비 17.2% 증가한 45억달러에 달하고 반면, 수입은 기업의 투자여유 위축으로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2.5% 증가한 104억달러에 그쳤다.

금년 하반기에도 수출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시장의 개척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금년도 총수출은 전년비

15.9% 증가 한 9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되어 총수출규모가 114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계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일수입 의존도도 '91년의 43.2%에서 작년에는 42.2%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산제품이 일본제품이나 여타선진국제품에 비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일반기계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오랜 기간 동일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해 온 데 있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專業率이 日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섬유

섬유산업은 화학섬유, 면·모 방직사, 직·편물, 의류 및 제품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섬유시장에서 5위의 생산국으로 수출은 6위를 점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생산량은 전년동기비 1.2% 증가한 108만톤을 기록하였으나 수출은 전년동기비 6.8% 감소한 88억달러에 그쳤다.

섬유수출 부진의 주된 원인은 중국, 인도네시아의 수출물량 직물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의류, 및 제품분야에서는 가격경쟁력의 열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있다.

금년 하반기중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회복세에 힘입어 112만톤에 이르러 그중 내수 69만톤, 수출 43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감소폭이 줄어들어 연중 섬유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 감소한 175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의 수출감소를 品目別로 보면 의류 및 제품류가 52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90년 이후 매년 15% 이상에

달하였던 직물류의 수출증가율도 4%로 낮아져 수출규모가 105억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도의 수출은 원료·사 및 직물 등의 수출증가세로 금년보다 8% 증가한 19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별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1995	1996			1997
		상반기	하반기	계	
원료·사	23.2	11.6	6.5	18.1	25
직 물	99.5	51.4	53.1	104.5	115
의류·제품	61.1	25.3	26.7	52.0	50
총수출	183.8	88.3	86.3	174.6	190

우리나라 섬유제품은 해외시장에서 中·低價品の 경우, 중국, 파키스탄과 中·高價品들은 이태리, 일본과 경합하고 있는 상태로서 일본, 이태리에 비해 우리의 품질수준이 10~30% 정도 열세이나 개도국 제품에 대하여는 10~20%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열세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 및 제품분야의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적정수준의 15%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 및 산업요원의 배정 비율도 섬유산업분야에는 보다 높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9) 비금속광물

公共투자부문에서 신규공사 대부분이 하반기로 이월되고 주택건설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6월중 시멘트산업의 내수는 5,124천M/T으로 기록되었고, 생산은 5,270천M/T을 나타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26,553천 M/T을,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27,196천M/T을, 수출은 상반기중 지속된 내수증가세로 인해 438천M/T을 기록하였다.

시멘트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계절적 시멘트의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라고 하겠는데,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시멘트수입 물량을 늘이기 위해 당초 6월말까지로 되어 있던 시멘트에 대한 해당 관세(1%)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7일분(106M/T)에 불과한 시멘트 비축시설규모도 선진국 수준인 18일 분으로 늘리며, 매점매석에 따른 공급난을 막기 위해 유통관계별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는 등 가수요방지대책도 마련,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콘크리트구조물의 耐久年限이 늘어나고 각종 土木工事의 공기단축 등이 요구되면서 이러한 용도에 맞도록 개발된 특수시멘트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板유리산업은 생산과 내수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28.5%, 4.1% 증가한 1,973천C/S, 2,180천C/S로 나타났다.

금년상반기 실적을 보면 업계의 생산능력증가로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한 12,002천C/S로, 내수는 상반기 주택건설경기가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여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11,026천C/S를 기록하였다.

시멘트 출하 및 생산 현황 (千M/T,%)

	1995. 6월			1996. 6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生産	5,156	8.6	6.8	5,270	△1.6	2.2	26,553	3.1
出荷	5,550	18.3	13.5	5,170	△12.8	△6.9	27,634	△3.5
(內需)	5,473	17.9	13.1	5,124	△12.8	△6.4	27,196	4.0
(輸出)	77	48.1	57.1	46	△9.8	△40.3	438	△17.8

3. 맺음말

최근의 국내경기악화는 경기확장기 이후 나타나는 순환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 산업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산업구조, 기업의 생산성, 생산여건 등의 구조적 문제가 대외 여건 변화와 함께 맞물리면서 악화의 정도가 깊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중화학부문, 특히 반도체나 철강 등 일부 산업에 집중 되어 국내경제의 성장과 수출이 이들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의 부진이 곧 국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더욱이 산업구조가 일본과 유사해지면서 우리 상품이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을 바탕으로 일본상품과 경쟁함으로써 엔貨가치의 변동이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 고물류비 등, 고비용구조로 인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비용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 등으로 국내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경제정책을 이곳에 집중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